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

KBS 사보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Vol. 736



신속·정확한 정보에 세계 최초 XR·메타버스 개표방송
시청률 1위로 개표방송 절대강자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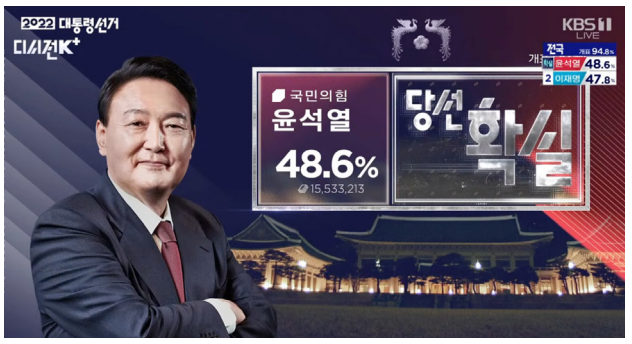
대선 개표방송… 국민의 선택은 역시 KBS!

선거 개표방송은 각 방송사의 기획력과 기술력을 총동원한 초대형 기획으로 '방송의 꽃'으로도 불린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의 선택은 어김없이 KBS였다. KBS의 대선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대통령선거〉는 흥미 위주의 개표방송이 아닌,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에 세계 최초로 시도된 XR(Extended Reality·확장현실)·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고품격 방송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청률 면에서도 지난 19대 대선은 물론이고 2022년 총선과 2021년 재보궐 개표방송에 이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개표방송 절대강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출구조사 알린 개표방송 2부 시청률 11.1% 기록

KBS의 대선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대통령선거〉는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총 4부로 나눠 방송됐다. (1부 3.4%, 2부 11.7%, 3부 10.5%, 4부 9.6% /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이 가운데 개표방송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출구조사 발표 시각(9일, 오후 7시 30분)이 포함된 2부 시청률은 동시간대 타 방송사 개표방송의 시청률(MBC 6.1%, SBS 5.6%)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11.1%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개표 중 방송된 〈뉴스9〉 역시 동시간대 가장 높은 12.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출구조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중'… 더욱 강력해진 디시전K+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출구조사는 지금까지 100% 적중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맞추는 족집게 같은 정확성으로 화제가 됐다. KBS 등 지상파 3사가 공동 실시한 출구조사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각각 48.4%와 47.8%로 예측했는데, 실제 두 후보는 48.6%, 47.8%를 각각 득표했다. 윤 후보의 실제 득표율과 출구조사의 차이는 0.2%p에 불과했고, 이 후보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일치했다.

KBS의 당선자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K+' 역시 더욱 강력해졌다. 투표 종료 6시간 40분 만인 10일 새벽 2시 10분쯤 개표방송 가운데 가장 먼저 윤 후보의 당선 '유력' 판정을 한 데 이어 3시 20분쯤 당선 '확실'을 판정했고, 3시 50분쯤에는 윤 후보의 당선을 확정(개표되지 않은 표를 모두 2위 후보가 가져가도 승부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하며 대선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계 최초 XR·메타버스 개표방송… 최첨단 기술 동원해 볼거리 풍성

KBS는 이번 개표방송에서 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XR로 구현된 청와대를 배경으로 데이터 쇼를 생중계했는데,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을 혼합한 XR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장된 현실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또한 24m 초대형 LED월, 98인치 대형 터치스크린과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활용한 AR 등 최첨단 방송 기술을 동원해 실시간 개표 상황을 전달했다. 코엑스 케이팝스퀘어(K-POP SQUARE) 대형 전광판에 나타난 입체적인 후보의 모습과 국내 최고 높이의 롯데월드타워(123층·555m)를 배경으로 펼쳐진 드론 영상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메타버스 개표방송 역시 젊은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KBS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 이용자들이 함께 개표방송을 볼 수 있는 가상 스튜디오를 구현해 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선보였다.

이 밖에도 KBS 홈페이지, my K,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과 유튜브 KBS 뉴스 채널, 트위터와 아프리카TV, 트위치,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 개표방송도 함께 진행해, TV를 뛰어넘어 개표방송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터뷰

Q 시청자의 눈과 귀가 KBS 대선 개표방송에 집중된 비결은?

무엇보다 KBS 구성원들의 탁월한 역량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표방송을 준비하면서, KBS 구성원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방송기획단(이하 선기단)이나 유관부서 직원들 모두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개표방송 날이 다가오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고, 때때로 절망하기도 했는데, 며칠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감동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표방송을 통해 KBS의 저력을 확인했고,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살아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내일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구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개표방송 준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KBS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부당한 공격과 비협조를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후보초청토론회를 성사시키고, 연설과 광고방송을 유치하고, 후보 사진 촬영 등 개표방송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각 캠프와 협의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지난했습니다.

저희 구성원 모두는 사소한 실수로 책잡히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더 나아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선거가 진행되면서 KBS와 선기단에 대한 각 캠프의 반응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적절한 협조를 받아 초청토론과 연설, 그리고 개표방송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석
선거방송기획단장

Q 6.1 지방선거 개표방송 준비 상황은?

지방선거 개표방송의 키워드는 '지역 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타이틀부터 경력방송까지 대부분을 제작해 내려보내고, 지역은 개표방송의 일부 시간을 배정받아 진행하는 방식을 넘어서려 합니다.

이를 위해 메인 스튜디오를 서울이 아닌 곳에 설치하려 합니다. 본사도 3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들을 뽑는 여러 지역 가운데 하나로 개표방송에 참여하고, 총국과 지역국 역시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맡는 분권형 개표방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불평등’을 넘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음이 온다〉 시즌2 ‘격차의 시대’ 3부작

다음이 온다

〈다음이 온다〉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에 신년특집 4부작으로 방송돼 호평을 받았던 시즌1에 이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오는 시즌2에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 1부 : 〈한국 사회 DNA,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로 규정돼 온 것에 비해, 청년 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이에 따른 세대 갈등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과연 이 진단은 맞는 것일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규정된 세대 간 갈등의 진짜 모습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 3월 17일(목) 밤 10시 KBS1



▮ 2부 : 〈데이터, 불평등을 다시 읽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불평등. IMF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른 실업자 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률,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상대적 빈곤율 등 수많은 수치가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위험 수준을 경고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 3월 24일(목) 밤 10시 KBS1



▮ 3부 : 〈불평등의 과학, 내일의 가치를 담아〉

물리학자의 눈에 비친 ‘불평등’에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인류가 이뤄낸 과학 기술 발전의 성과 뒤에 남겨진 수많은 불평등의 흔적을 찾아본다. 또 AI, 메타버스가 일상이 될 미래에도 과학 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과연 ‘인간’만이 가진 것일까?

▶ 3월 31일(목) 밤 10시 KBS1

패럴림픽 중계로 평화와 공존의 소중함 일깨워



▮ KBS, 패럴림픽 개·폐막식 등 중계… 공적 책무 수행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선수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보여준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3월 13일로 열흘간의 열띤 일정을 모두 마쳤다. KBS는 지난 3월 4일 개막식 단독 생중계에 이어 13일 김권일 해설위원과 이영호 아나운서가 호흡을 맞춘 폐막식 중계에서 깊이 있고 품격 있는 해설을 선보였다.

KBS는 이번 패럴림픽 기간 동안 개·폐막식을 포함, 다양한 경기 중계를 지상파에 총 19시간 편성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했다.

개막식의 김권일·이정민 위원, 아이스하키의 김익환 위원, 휠체어 컬링의 이재호 위원, 스노보드의 박재민 위원 등 각 종목 최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KBS만의 명품 해설은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패럴림픽의 감동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my K 중계 등 다양한 ‘채널 선택권’ 제공… 최국화 앵커 뉴스 진행 호평

KBS는 지상파 1·2TV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 my K를 통한 4개 채널에서 하루 평균 30시간 이상 다양한 경기를 생중계해 시청자의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보장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는 장애인 앵커인 최국화 씨가 진행하는 패럴림픽 코너에서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새 예능



‘차세대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

〈아기싱어〉는 올해로 100번째를 맞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오래전 과거의 정서가 담긴 옛날 동요 대신 요즘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세대 국민동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담아낼 예정이다. 개그맨 김숙과 문세윤은 원장 선생님으로 가수 정재형과 이석훈, 기리보이와 이무진, 모델 장윤주는 음악 선생님으로 나서 흥 많고 끼 많은 14명의 아기싱어들과 함께 동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관전 포인트.

연출을 맡은 박지은 PD는 “450명의 아기싱어 지원자 중 2022년 현재의 동요가 필요한 대한민국 어린이를 대표할 수 있는 14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청률 3.1%(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힘찬 스타트를 끊은 3월 12일 첫방송에서는 배우 한가인을 똑 닮은 ‘리틀 가인’ 정소희부터 한국인 엄마와 캐나다·멕시코 출신의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다니엘라,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6세 소년 김준목, 최연소 아기싱어 이시안 등 꼬마 가수들이 등장해 ‘귀염뽀짝’한 매력과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시청자들을 무장해제 시켰다. 특히 마지막으로 등장한 ‘메인보컬 아기싱어’ 7세 소녀 우예원은 “선생님들이 하얀 구름처럼 몽실몽실한 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동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기싱어〉 제작진은 어린이들이 동요 부르는 영상을 세로 직캠형식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시안 어린이의 ‘그러면 안돼’ 영상이 공개 이틀 만에 조회 수 3만 회를 넘기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조그만 아기가 노래를 외워서 부른다는 자체가 대견하다”, “귀여워서 기절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기싱어〉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모습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KBS2

새 주말드라마





이가(家)네 삼형제의 혼인성사 프로젝트 현재는 아름다워

〈신사와 아가씨〉 후속으로 오는 4월 2일 첫방송 예정인 새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는 연애도, 결혼도 기피하는 시대를 사는 혼기 꽉 찬 이가(家)네 아들 삼형제가 6개월 안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집안 어른들의 제안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혼인성사 프로젝트 드라마다.

공부하고 일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결혼의 때를 놓친 치과의사인 장남 윤재(오민석 분)와 사회적 성공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로펌 대표 변호사 해준(신동미 분)! 그리고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차남 현재(윤시윤 분)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퍼스널 쇼퍼 미래(배다빈 분)! 마지막으로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시 준비생인 삼남 수재(서범준 분)와 결혼이나 연애 생각보단 현실에 치여 사는 파티쉐가 되고 싶은 유나(최예빈 분)! 이 세 커플의 사랑과 결혼 분투기가 따뜻한 봄날을 맞은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재미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아름다워〉는 〈대왕세종〉, 〈다 함께 차차차〉 등의 흥행작들을 만들어낸 김성근 감독이 연출을, 〈닥터스〉, 〈청춘기록〉 등에서 시청자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 제조기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하명희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 매주 토~일요일 저녁 8시 KBS2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전주방송총국의 고품격 음악 토크 쇼, Song큐멘터리 〈백투더뮤직〉(MC : 가수 소찬휘, 신유)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명곡의 주인공을 만나 노래에 얽힌 사연과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생생한 라이브로 명곡을 들으며 시청자들의 추억을 재소환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 4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뮤지션들이 출연했는데 공일오비, 이상우, 다섯손가락, 이치현과 벗님들, 여행스케치, 박남정 등 1960~80년대 한국 대중음악에 큰 족적을 남긴 가수들뿐만 아니라 9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김종서, 김현철, 박미경, 빛과소금, 조정현, 김현정 등이 출연했다.

특히 〈백투더뮤직〉은 KBS의 고유 자산인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해 가수의 인생사와 더불어 다양한 라이브 공연과 증언, 영상 자료 등을 담아내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방송된 라이브 음원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음원 출시와 LP(컴필레이션 특별판) 제작을 준비 중이다.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전국권) KBS1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0분(전북권) KBS1



'2022 시청자 감사음악회'… 국악과 클래식, 재즈와 팝까지

KBS국악관현악단과 KBS교향악단, KBS관현악단이 시청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악부터 클래식, 재즈와 팝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하는 '2022 시청자 감사음악회'를 오는 11월까지 매달 선보인다.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2월 24일 KBS홀에서 열린 첫 공연에서는 KBS국악관현악단이 임인년에 바라는 희망을 국악의 선율 속에 녹여냈다.

3월에는 〈봄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한 KBS국악관현악단의 공연(3월 30일, KBS아트홀)과 KBS관현악단의 〈팝스콘서트, 비상(飛上)〉(3월 31일, KBS홀)이 기다리고 있다.

'2022 시청자 감사음악회' 관람 신청은 KBS 홈페이지 '이벤트·방청' 페이지(event.kbs.c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2 시청자 감사음악회' 공연 일정

미래세대와의 소통 강화 위한 〈KBS 1020 시청자위원 'K PD'〉 2기 모집

KBS가 〈1020 시청자위원 'K PD'〉 2기를 공개 모집한다.

〈1020 시청자위원 'K PD'〉는 KBS가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젊고 참신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전국의 만 16~25세의 시청자(학력 제한 없음)가 참여대상이다.

앞서 2021년 선발된 〈1020 시청자위원 'K PD'〉 1기는 6개월 동안 매월 1회 KBS 편성·제작 책임자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미디어 교육 강의를 수강했다. 또한 KBS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2021년 9월 'KBS 시청자주간'에는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 특집프로그램 '1020세대, KBS를 말하다'를 통해 젊은 세대의 자유롭고 날카로운 의견을 KBS와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1020 시청자위원 'K PD'〉 2기에 선발되면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KBS 제작 현장 견학과 현업 실무자 미디어교육 수강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 결과물은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KB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4월 3일까지 이메일 kpd@kbs.co.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구 분	부 문	작품명	수상자
미국 애콜레이드 글로벌 필름 컴피티션 (AGFC)	TV프로그램 시리즈	〈대박부동산〉	박진석, 이웅희
		〈경찰수업〉	유관모
	어린이·가족 프로그램	〈TV 유치원 – 세상의 모든 똥〉	정효영
	LGBTQ+ (성적소수자)	〈다큐인사이트 – 빛은 무지개〉	조현웅
스톡홀름 필름 & TV페스티벌	장편영화	〈드라마스페셜 2021 – TV 시네마 '사이렌'〉	안준용
제16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미얀마 난민 최초 현장 보도〉	김원장
제263회 이달의 PD상	TV시사다큐	〈역사스페셜 – 박물관은 살아있다〉	김민회, 김현경(작가)

KBS 노사, '매년 1월 1일 임용 원칙' 단협 체결



KBS 노사가 채용 정례화, 임명동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의철 KBS 사장과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강성원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 등은 3월 4일 본관 임원회의실에서 '2022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KBS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4차례 실무회의와 5차례 총괄소회의 등을 거쳐 15개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채용(제35조) 조항인 '공사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 특성에 맞도록 채용제도를 운영한다'에 '매년 1월 1일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채용 정례화를 문구로 추가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그동안 들쭉날쭉한 채용정책으로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채용 정례화를 요구해왔다.

또한 임명동의 대상자에 시사교양1국장과 라디오제작국장을 추가했다. 기존 임명동의 대상은 단협 제29조에 따라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장·시사제작국장, 제작1본부 시사교양2국장이었다.

▌주요 개정 내용

내 용	2019년 단체협약	2022년 단체협약	취 지
임명동의 대상자 확대 (제29조)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제작1본부] 시사교양2국장	**[제작1본부] 시사교양1국장, 라디오제작국장 추가**	시사기능 담당 책임자 임명동의 대상 추가
신규채용 정례화 (제35조)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원칙	**신입직원 공개채용은 매년 1월 1일 임용 원칙**	공사 인력 운영 관련 예측 가능성 확보
연차휴가 촉진비율 협의 (제59조) [신설]	–	**연차휴가 사용 촉진시, 대표노조와 촉진 비율 협의**	휴식권 및 임금 영향 고려, 노사 협의 도입
유사산 시 배우자 휴가 (제71조) [신설]	–	**남성 조합원 배우자 유사산 시 3일 휴가 부여 (16주 이상 임신)**	출산 장려 관련 사회적 논의 반영

※ 기타 법 개정 사항 반영 등
-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 육아휴직 사용 및 근로시간 변경 신청 가능
-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 반영(월 만근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기준 : 1일)
- 계속근로 1년 미만 조합원 매월 발생 휴가 사용 기간 단축(2년 → 1년) 등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김의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2821 / kbssabo@kbs.co.kr
편집인 이경호 취재 안현기 기현정 최재영 김희경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박수연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